

세계 곡물가격의 변동 현황과 미래 전망

World Grain Price Fluctuations and Future Outlook

하 영 제

Young Je Ha

前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Former President & CEO of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제 곡물가격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러시아가 자국 수급량 확보를 위해 밀 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32%나 급등했다. 밀 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들의 가격도 36~57%나 뛰어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 FAO, USDA 등 국제기구들은 모두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더불어,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국민소득이 상승

하면서 곡물 수요는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브라질 등 농업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쌀, 밀, 콩, 옥수수, 보리 등 곡물이 연간 2,000만톤 가량 국내에서 소비되는데, 이 중 600만톤 정도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1,400만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돈 주고도 곡물을 못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더욱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식량안보'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식품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2009년 130조 규모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 식품산업은 27% 정도에 불과한 식량 자급률



자료 : FAO

그림 1. FAO 식품가격지수 변화 동향

*Corresponding author: Young Je Ha
Former President & CEO of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 aT Center,
232, Yangjae-Dong, SeoCho-Gu, Seoul 137-787, Korea,
email: hayoungje54@naver.com

표 1.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제조·외식(A+B) | 83,878.9 | 91,895.9 | 89,920.7 | 95,273.8 | 107,514.4 | 119,923.6 | 130,636.5 |
| (A)음식료품제조업(사료제조업포함) | 39,615.4 | 43,526.3 | 43,668.2 | 44,381.4 | 48,149.1 | 55,211.7 | 60,771.3 |
| (A')음식료품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 35,459.3 | 38,758.7 | 39,058.7 | 39,797.8 | 42,414.2 | 47,319.5 | 52,598.6 |
| (B) 음식점업 | 44,263.5 | 48,369.6 | 46,252.5 | 50,892.3 | 59,365.4 | 64,711.9 | 69,865.2 |
| 제조·외식·유통(A+B+D+G) | - | - | 180,123.4 | 192,356.9 | 215,095.6 | 237,025.4 | 249,218.1 |
| (C) 음식료품및담배 도매업 | 47,457.1 | 49,185.6 | 50,520.0 | 55,088.3 | 61,976.8 | 68,337.4 | 70,753.9 |
| (D) 음식료품 도매업(담배제외) | - | - | 47,566.4 | 52,023.8 | 58,612.4 | 64,748.4 | 69,865.2 |
| (E)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10,608.1 | 10,775.6 | 8,957.9 | 9,547.6 | 10,147.4 | 11,169.1 | 12,228.3 |
| (F) 음식료품 소매업(담배제외) | - | - | 8,835.7 | 9,416.1 | 10,011.5 | 11,086.2 | 12,154.6 |
| (G) 식품소매업 | - | - | 42,657.9 | 45,145.9 | 49,131.7 | 52,666.1 | 56,889.1 |
| 농림어업 | 37,787.1 | 42,019.9 | 41,322.2 | 41,675.2 | 41,589.1 | 46,007.6 | 49,91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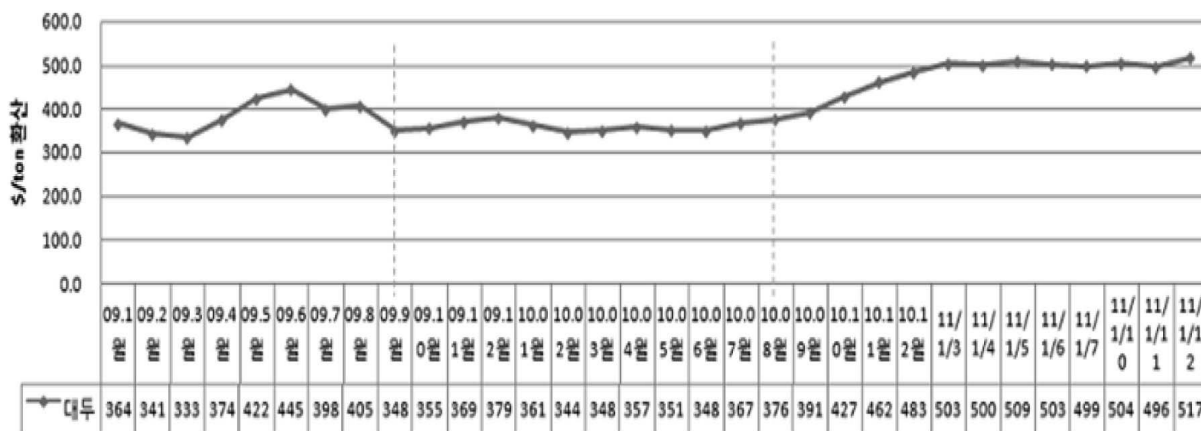
※ 자료 : FIS, aT농수산물유통공사

로 인해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제조·가공하는 구조로써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이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식품물가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식량안보'의 개념에서 안정적인 곡물 확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식품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국제 곡물가격 변동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료 농산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국내 필요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국제 곡물시장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생산과 소비가 우선되는 '초기시장(Primitive Market)'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급 부족에도 수급불균형이 쉽게 나타난다. 곡물은 매일 소비되어야 하는 필수적 재화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먼저 자국 내에서의 안정적 공급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생산량 중에서 먼저 소비하고 남은 일부만이 거래되므로 생산량 대비 교역량이 적은 전형적인 '얇은 시장(Thin Market)'의 성격도 아울러 띠게 된다



※ 대두가격 : CBOT / 자료 : FAO(2010), 식품산업통계정보

그림 2. 최근 2년간 국내 두부가격과 국제 대두가격 변동추이

표 2.

| 품 목 | 2009.1 | 2011.1 | 증감률(%) |
|------------|--------|--------|--------|
| 대두(\$/톤) | 364 | 513 | 40.9 |
| 두부(원/100g) | 614 | 680 | 1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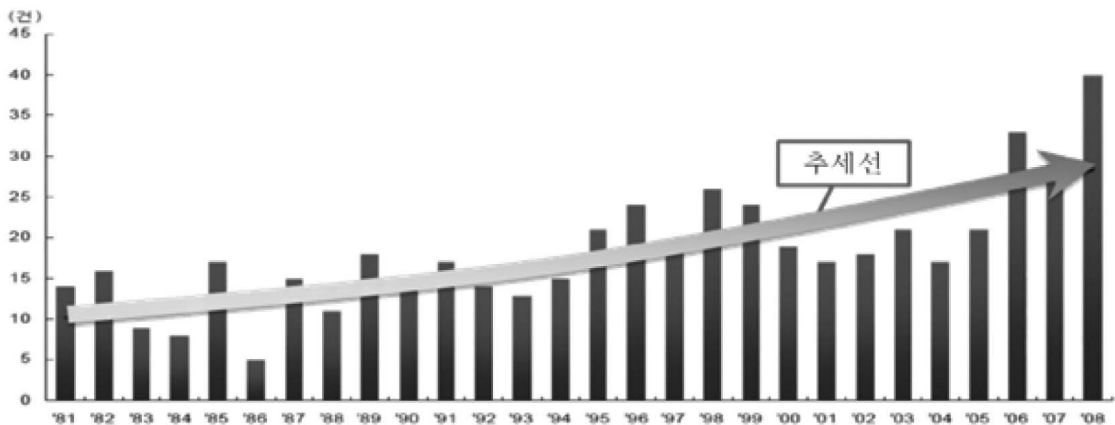
주요 곡물의 생산량 대비 교역량을 보면 콩은 35%, 밀은 20% 그리고 옥수수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 곡물교역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옥수수의 경우에 1%의 생산량 변동이 약 9%의 교역량을 변동시키고, 9%의 교역량 변동은 옥수수 가격을 약 45% 변동시킨다고 전문 연구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결국 옥수수 1%의 생산량 변동이 45% 이상의 가격변동을 초래할 만큼 국제 곡물시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국제 곡물시장은 수출국은 적으나 수입국이 많은 소수 공급자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다. 수출국은 미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몇 개 국가에 불과하지만, 수입국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많은 편이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는 주요 곡물의 생산량은 많은 편이지만 많은 인구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량도 많아 상대적으로 곡물 수출량은 적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과 옥수수 및 콩

과 같은 주요 곡물은 상위 5개국이 생산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콩은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수 수출국에 의한 과점 뿐만 아니라 국제 메이저에 의한 공급과점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4대 메이저가 주요 곡물의 대략 70~80%를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2000년 이후 급속히 확대된 달러의 유동성과 이에 따른 투기수요로 인하여 국제 농산물 시장에도 투기자본이 대폭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은 국제금융 미 선물시장과 연계되어 그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0년 말 옥수수 선물시장에 대한 투기자본의 유입건수는 2010년 7월초와 대비하여 6.5배 증가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콩 선물 옵션과 대두유 선물 옵션에 대한 투기세력의 순매수 포지션은 2011년 5월 17일에서 5월 30일까지 각각 108.4%와 21.0% 상승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호우와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산업의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세계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다. 국제 빈민구호 단체인 '옥스팜'은



※ 주 : 대형 기상이변(지진 및 화산폭발 포함)은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 달러('08년 가격 기준)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 자료 : Munich Re('09), Topics Geo : Natural Catastrophes 2008

그림 3. 대형 기상이변 연도별 발생 빈도

2011년 5월 3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하여, 국제 농산물 가격이 2030년까지 지금보다 120~180%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것이며, 부유층보다는 빈곤층에 불리하며 선진국보다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용 및 사료용 곡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제 곡물의 재고량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곡물의 재고율은 1년간 소비하는 곡물의 총량 중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2개월치 소비량을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재고율로 나타내면 17%에 해당된다. 2011년 신곡이 수확되기 전 예상 재고율은 옥수수 14.6%, 밀 27.6% 그리고 콩은 23.8%로서 2010년과 대비하여 2~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세계 인구의 증가 또한 세계 곡물의 재고량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26억톤 생산되어 전 세계 인구 1인당 평균 670kg을 소비하였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보다 13억톤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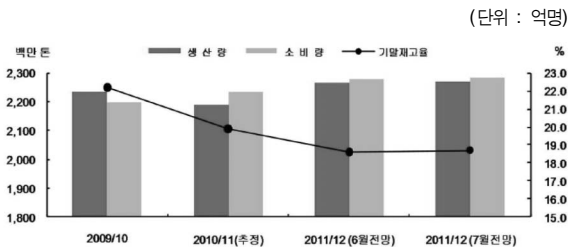
이러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락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곡물의 절대량은 충분하며, 2020년까지 안정될 전망”과 같이 WTO, OECD 등 곡물생산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낙관론과 “최근 곡물가격 급등은 일시적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식량위기는 소리없는 쓰나미”와 같이 FAO, WFP 등 곡물수입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다. 하

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이러한 제반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 자국의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은 연간 곡물 수요량의 30% 이상을 비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식품가격이 급등할 기미가 있으면 국무원 산하 국가양식국에서 비축 물량을 방출하여 충격을 줄이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2010년 1월에 옥수수 및 쌀, 보리 등과 같은 비축 곡물을 방출하여 가격을 조절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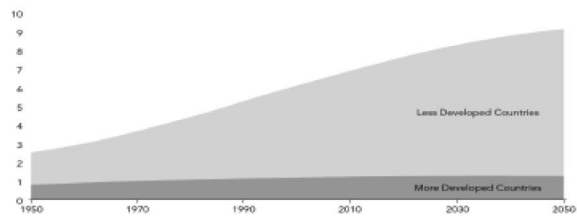
일본도 쌀 100만톤을 비축하고 있는 외에도 밀은 2~3개월, 사료용 옥수수는 1개월 분, 그리고 콩은 2주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특히 일본은 해외 농업기지 개발과 글로벌 곡물 유통업체를 육성하여 비축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국민의 1인당 해외농지 규모는 약 4,628 평방미터(1,400평)으로서 우리나라보다 약 70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곡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양이 일본의 전체 해외곡물 도입량의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곡물 도입량의 80% 이상을 국제 곡물메이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과 뚜렷이 대조된다고 하겠다.

중국, 일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식량(곡물) 자급률이 현재 26~27%에 불과하여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에는 80.5%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 56.0%, 1990년에는 43.1%, 2000년에는 29.7%, 그리고 2009년에는 26.7%로 해마다 눈에 띄



※ 자료 : 세계 곡물 수급 동향(2011.7)(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4.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5. 전 세계 인구 전망

게 감소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산업용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해마다 농지를 전용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유휴 경작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에는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45% 이상이나 되고, 20~40대 농업인의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작물의 작부체계가 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라고 하겠다. 이는 쌀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으로서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농정이 전통적으로 쌀 생산량 확대와 외국산 쌀의 수입 억제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작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쌀값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쌀 위주의 농사에서 잡곡 생산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이유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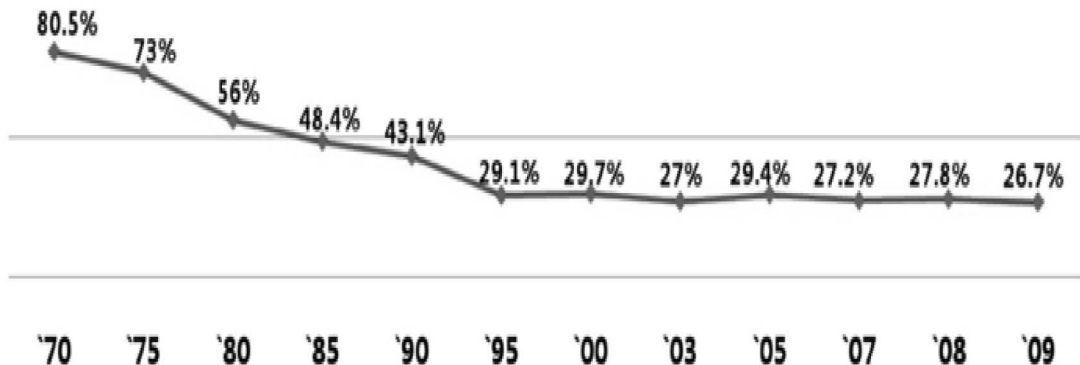
국내에서 모자라는 곡물을 수입할 때에도 소수의 곡물 수출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적 과점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수수과 밀, 그리고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을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브라질, 우크라이나와 같은 몇몇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곡물의 국제적 과점시장에 대한 의존성은

우리나라 수입 곡물의 대부분이 국제적 곡물 메이저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소위 4대 국제 곡물 메이저가 우리나라 수입 곡물의 60% 이상과 축산사료의 90%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콩은 4대 메이저인 카길(Cargill), 에이디엠(ADM), 번기(Bunge), 그리고 드레퓌스(Louis Dreyfus, LDC)가 6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계 미쓰이(Mitsui), 미쯔비시(Mitsubishi), 이토츠키(Itochu) 등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는 메이저가 62%, 일본계 10%, 그리고 나머지가 28%를 차지하고, 밀은 메이저가 58%, 일본계가 12%, 호주가 27%, 그리고 나머지가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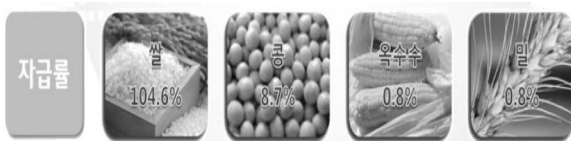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곡물수입 방식은 필요시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라 대부분이 고정된 가격(flat 거래)으로 구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물가 동반 상승을 완충시키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7년 1월 국제 밀 가격이 톤당 180달러에서 2008년 5월 톤당 400달러로 222% 상승하였을 때, 국내 밀가루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kg당 860원에서 1,830원으로 213% 상승하였다. 이는 밀 국제 가격 상승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전가되어 밀가루 가격의 상승을 연동시킨 결과라고 하겠다.

이처럼 국내 곡물 자급률이 낮고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공급 능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6. 식량자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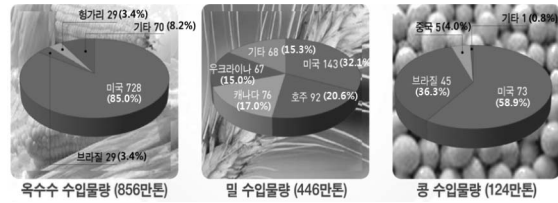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7. 주요 곡물 자급률

력 제고 및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국제 석유과동을 여러 번 겪어오면서 돈이 있어도 석유를 쉽게 구입할 수 없다는 사례를 충분히 경험하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공급능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게을리하면서, 해외에서 식량의 대부분을 공급받겠다는 전략은 당초부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농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조정하여 품목별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정이 지금까지 쌀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앞으로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 농업기반의 확보를 국민들이 공공재(public goods)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가격 하락 및 식생활 패턴 변화로 인한 쌀 수요 감소의 가속화 등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 농가는 지속적으로



※ 자료 : KATI(aT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8. 2010년 옥수수, 밀, 콩 국가별 수입량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쌀 재배 논을 기타 곡물이나 조사료 단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조치에는 쌀 농사에 대한 보조금의 합리적 조정 및 기타 곡물 생산에 대한 경영 안정형 및 경관보전 직불제 실시, 곡물에 대한 수매제도 확립, 그리고 밭 기반정비와 대대적인 기계화 경작로 개설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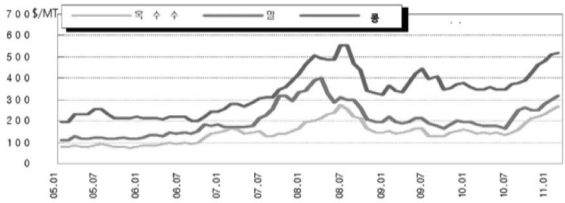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 곡물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매 방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곡물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제입찰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 없이 같은 곡종에 대하여 같은 품질이라면 가장 단가가 낮은 물량을 구입하는 전통적 방식인 것이다. 이러



※ 기타 : 곡물 메이저가 아닌 중형 곡물기업

그림 9. 콩, 옥수수, 밀의 메이저 곡물회사 수입 비중



※ 자료 : 한국물가협회

그림 10. 국제 곡물가격 상승추세

한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국제 곡물 거래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재의 수동적인 곡물 거래에서 공격적 거래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물거래는 항상 가격 변동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충격 완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선물거래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겠다. 베이스스 거래가 하나의 방법으로 일단 베이스스를 정해 놓고, 실제로 곡물을 구매할 때에는 선물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따르는 방식이다. 이 때 베이스스의 움직임이 더 적고 예측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보아 국내에서 어차피 주요 곡물을 완전하게 자급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요 곡물의 국제적 작황을 분석하고 장기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 곡물의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세계 주요국의 곡물 작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석 및 관리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미국, 중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 등의 곡물 작황에 대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작황에 대한 관측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국내에서 거의 해마다 거듭되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파동을 보면 이를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만 탓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더하여 우리의 과학적 관측 역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국내의 곡물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작부체계를 조정하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곡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곡물을 완전 자급한다는 것은 우리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장기 안정적인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코자 할 때 해외에서의 곡물 조달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때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은 대체로 농장형 또는 유통형 2가지 유형을 띠게 된다. 농장형은 진출국의 농지를 확보하여 농산물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유형이다. 유통형이라 함은 수확 후(post-harvest)단계에 참여하여, 현지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 저장, 건조, 가공 또는 유통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메이저와 일본의 진출기업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형이라고 하여 반드시 수확한 농산물을 사후에 취급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종자와 농약, 그리고 농기계 및 영농자금 등을 생산자에게 미리 지원하고 수확물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형식을 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유통형으로써 미국,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수출



그림 11. 곡물 구매 시 입찰방법별 비율



그림 12.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체계도

국 산지 엘리베이터 인수 및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 참여 등을 통해 확보된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업체가 곡물확보, 현지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 그리고 국내 판매에 참여하여 각자의 특화된 사업 네트워크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기본 방향은 2015년까지 총 400만톤의 곡물을 이 시스템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재 곡물의 자급률 27%를 자주율 47%로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 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곡물 400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곡물 총 도입량 1,400만톤의 30%에 해당된다. 옥수수 250만톤과 밀 및 콩을 각각 100만톤과 50만톤으로 합산하면 400만톤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곡물 총량 1,400만톤 중에서 400만톤은 이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1,000만톤에 해당하는 물량은 여전히 현재의 민간방식대로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400만톤으로 책정한 이유는 400만톤이 우리나라의 식량

비상시에 필요한 곡물의 최소 규모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민간 기업의 탄력성과 공기업의 위기 대응성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단계는 진입기로서 국제곡물 조달 및 유통 사업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처음으로 뛰어들었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상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로서 투자전략은 2개 국가 모두 유통부문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운영 능력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출방식으로는 미국에는 기존 업체를 M&A 또는 지분 참여하며, 브라질에는 산지 엘리베이터 건설 및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 참여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전후방 곡물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라고 하겠다. 대상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며 투자전략으로서 우크라이나에는 유통부문, 그리고 미국에는 전후방 곡물 관련 사업으로 진출한다. 기대효과로는 Value Chain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유통부문을 강화하는 등 곡물사업을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1)산지 EL : 생산지에 위치, 농가로부터 매집 물량 저장·건조
 2)터미널 EL : 산지 EL로부터 매집·저장, Unit Train에 적입
 3)강변 EL : 산지 EL로부터 매집·저장, Barge선에 선적
 4)수출 EL : 강변·터미널 EL로부터 매집하여 벌크선에 선적

것이다. 그리고 진출방식으로서 우크라이나에는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건설하고 미국에는 엘리베이터를 적극적으로 M&A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우리나라 곡물산업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라고 하겠다. 진출대상 국가는 러시아(연해주)이며 유통부문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기대효과로는 추가적인 해외식량 기지를 확보하고 물량 확보를 통한 곡물자주권을 달성한다는 것이며, 진출방식은 연해주에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건설한다.

그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민간과 합작으로 곡물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공사의 곡물사업 진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품목별 및 산업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품목별 효과를 살펴보면 공사 참여 시 도입곡물의 가격절감 효과는 2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공사의 도입 물량에 해당되는 곡물가격이 하락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사의 해외곡물 사업 진출로 곡물 메이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곡물가격을 예전보다 낮게 제시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단가절감 효과가 있다.

곡물가격 절감비율을 3%, 5%, 그리고 7% 중에서 기준 절감비율을 5%로 하고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절감되고 그 뒤에는 절감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0년간의 경제적 효과(생산변동효과)는 약 2조원 가량 된다. 그리고 산업별 효과는 품목별로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밀은 제분예, 옥수수는 사료예, 그리고 콩은 식용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각 곡물의 수입가격 파급계수와 생산유발 계수가 서로 달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식량안보 달성정책은 지금까지 쌀 증산 중심의 양적확대에 중점이 주어져 왔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곡물자원과 환경 및 영양이 고루 조화되는 식량안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곡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